

‘붕괴 사고’ 원인 규명...오늘부터 소환 본격화



25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실종자 탐색, 잔해물 제거 등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생훈 기자

경찰, 지지대 미설치·역보 무단설치 지목 사고원인 토대로 공사 관계자들 과실 조사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동안 실종자 수색 참여로 늦어진 현대산업개발의 과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소환조사를 시작한다. 특히 이번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3개층 지지대를 철거하고, 수심토에 달하는 역보를 무단 설치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를 통해 무단 시공과 부실 공사 등으로 이어진 붕괴사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 본부는 25일 “실종자 수색 작업 참여로 그동안 소환조사를 미뤄온 현산 입건자들을 오는 26일부터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입건자는 총 11명으로 현산 현장소장과 2공구 책임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이다.

경찰은 이중 현산 관계자들이 나머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어 그동안 소환 조사 일정을 미뤘지만, 붕괴현장을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으로 현산 역할이 줄어 소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경찰은 36~38층에 걸친 지지대가 모두 제거된 것이 이번 연쇄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39층 콘크리트 타설 시공 하중을 하부층이 지탱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 A사는 지난해 12월 28일 36~37층, 올해 1월 8일 38층 등에 설치된 지지대를 모두 철거한 후 지상으로 내렸다.

A사 측은 “지지대 철거가 현산 현장 책임자(1단지 대리 현장소장) 김모씨의 지시였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지대 철거가 원청과 하청의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 등 이익에 부합한 부실 공사 정황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역보’(역 ‘T’자 형태의 수벽)를 무단 설치한 것도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했다.

원청 현산과 협의를 통해 하청업체는 공간이 좁은 PIT(설비 공간) 층 위에

만 콘크리트로 역보 7개를 만들어 특수 거푸집인 데크 플레이트를 올려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역보 7개는 각각의 두께가 30~40cm에 달해 무게가 모두 수십t에 달하며, 39층 중 붕괴가 진행된 곳은 이 역보가 설치된 곳과 겹쳐 붕괴의 주요 요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역보는 일종의 비내력벽을 건축 구조물로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안전성 검토를 거쳐 설계 변경을 거쳐야 하지만 현산은 이를 무시했고, 현산과 하청업체 측은 설계변경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철근을 넣지 않고 콘크리트로만 역보를 만든 정황도 의심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지대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가 붕괴에 영향을 미친 주된 과실로 보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인 신병 처리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별도로 하청업체 대표 1명을 추가 입건하고 재하도급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규명된 과실을 중심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중수본 첫 브리핑...구조 윤곽 제시 못 해

“빠른 수색 완수가 목표...최적 방안 찾는 단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을 총괄할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25일 첫 브리핑을 열었으나 향후 실종자 수색과 구조의 전체적인 윤곽은 제시하지 못했다.

중수본은 이날 오전 광주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와 합동으로 출범 후 첫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황종철 중수본 총괄조정반장(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새로운 발표자로 나서 상층부에서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 상황을 전달했다.

붕괴가 멈춘 22층을 기점으로 상층부로 향하는 남은 수색의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해달라는 질문들이 중수본이

참여한 첫 브리핑에서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해당 답변은 중수본에 참여한 정부 기관 관계자 대신 아파트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측이 주도했다.

민성우 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며 “저희가 안을 내고 중수본에서 검토해 확정된 부분만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 실장은 “외벽 안정화나 내부 지지대 설치, 외부 낙하물에 대비하는 모래포설 등 선제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6층이나 27층 등 잔해가 쌓인 상층부 수색은 여러 안들 가운데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중수본은 현장에서의 역할과 기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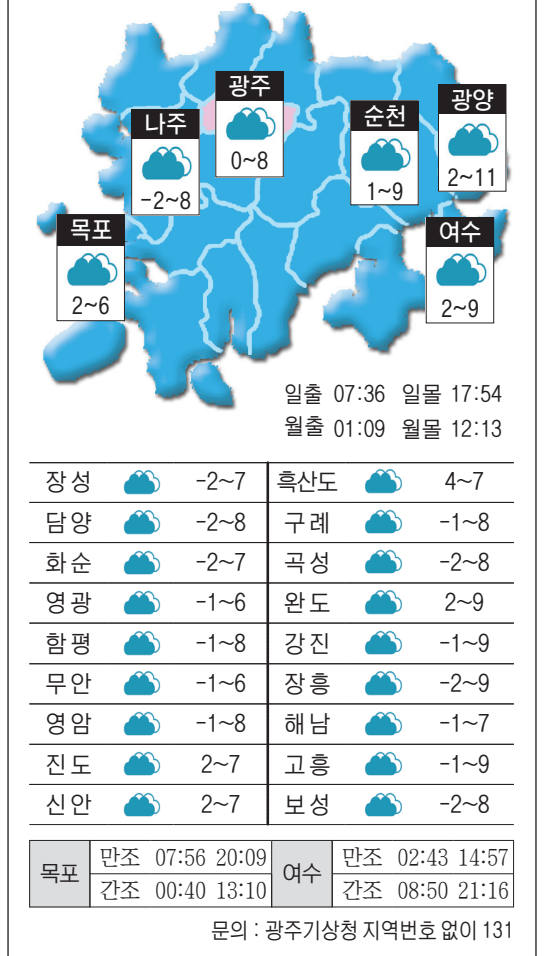
역 대책본부와의 차별성을 ‘밀착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황 조정반장은 “그간에도 광주시나 소방청,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고 지원하는 노력을 했다”며 “다워크레인 해체 이후 수색과 구조가 장기화하다 보니 더 밀착해서 필요한 지원을 잘하기 위해 중수본이 현장에 가까이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 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의해 탐색구조와 건축물 안전에 집중적으로 중앙부처가 역할을 하겠다”며 “빠른 수색 완수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붕괴사고 보름째를 맞은 이날 수색은 27층 이상 상층부에서 콘크리트 잔해를 부수고 제거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홍승현 기자

오늘의 날씨



‘불법 재하도급’ 계약비리 수사 착수

경찰이 광주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 의혹 등 계약비리에 대한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와 별도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겼다.

경찰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A사가 불법 또는 편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사 대표를 별도로 입건했다. 경찰은 A사가 22개 계약을 맺어 공사의 상당 부분을 외부 작업자들에 맡기며 직접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철근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등 붕괴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공사 분야 관련 계약부터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최환준 기자

‘학동 붕괴’ 현산 임원도 불러 조사

광주 학동 붕괴참사 관련 경찰이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현산 고위직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계약비위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이 필요하며 반려했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경찰은 계약 비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현산 임원들을 보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당시 위법한 철거행위를 한 철거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환준 기자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DASCO
Development Advance Solution Co., Ltd.
www.dasco.kr

다스코(주)는 흥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SOC사업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신재생 e.사업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건축자재사업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WBM사업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

본 사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단지 26-2 TEL. 061)370-2144

서울지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 9길 26 H비즈니스파크 C동 801호 TEL. 02)3440-7800

당진1공장 (데크플레이트)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361-15 TEL. 041)431-8200

당진2공장 (단 열 재)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로 50 TEL. 041)431-8259

영 남 지 사 부산시 동구 초량동로 29 KCA빌딩 405호 TEL. 051)518-3702

새만금공장 (WBM)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 블록 2로트

다스코 가족회사

다스코

썬에코(수상태양광)

세라코(점토벽돌, 외장재, 수처리)

가스코(가드레일, 교량난간)

스틸코(철근유통·가공)

학교법인흥인학원(영산중·고등학교)

흥인(부동산 임대업)